

Toray, 구조조정 효과 빛난다!

체질강화 통한 수익구조 개선 ... 해외사업 수익회복은 과제

Toray가 뚜렷한 수익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일본 섬유사업이 2003년에는 70억엔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 2년 동안 약 110억엔이 개선됐다.

영업적자가 지속됐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미국·프랑스 사업이 회복되면서 미국은 2003년 흑자로, 프랑스도 2004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수익이 감소추세를 나타냈던 탄소섬유·복합재료도 수요처 개척의 진전 및 수급밸런스, 시세개선으로 2003년 연결 영업이익이 2002년에 비해 2배 증가한 62억엔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의 체질강화로 수익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첨단재료를 중심으로 경쟁우위제품에 집중 투자해 수익확대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Toray는 2002년 창업 이래 처음 58억엔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일본 섬유사업이 적자로 전략하고 PET필름 부문에서 미국·프랑스 2개 거점의 적자폭이 확대됐으며 탄소섬유·복합재료 사업의 수익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Toray는 최근 2년간 체질강화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왔다. 특히, 일본 섬유사업은 2002년 단독 42억엔의 영업적자 상태까지 악화됨에 따라 인력 합리화를 피함과 동시에 최종 소비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의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중국거점을 활용한 Global Operation 확대를 실시했다.

경쟁기업의 잇따른 사업축소·철수로 상권이 확대된 점도 플러스로 작용해 Toray의 일본 섬유사업은 2003년 단독 20억엔의 영업적자까지 회복했다. 2003년에도 단독으로는 70억엔의 영업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섬유사업의 연결실적도 급속히 회복돼 2003년 연결 영업이익은 2002년에 비해 2배 증가한 190억엔으로 추정된다.

PET필름의 미국·프랑스 사업 재건도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비디오테이프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공업용·포장용 대체를 급속히 추진한 결과, 미국사업은 최악이었던 약 40억엔의 영업적자에서 2003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프랑스도 10억엔을 넘는 영업적자에서 2004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또 탄소섬유·복합재료도 고속도로용 난간이나 자동차용 프로펠러 회전축, 천연가스 자동차용 CNG 탱크 등 산업용 수요가 안정돼 수익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해외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외 연결 매출액은 2003년 상반기(4-9월) 2217억엔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으나, 영업이익은 32% 수준에 그쳤다.

현재는 2003년 영업흑자로 돌아선 미국사업, 2004년 영업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사업의 수익확대를 서두르면서 수익률이 낮은 ASEAN 사업을 재건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10>